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1.1.22.(금)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조정팀
3	×	○	담당관 : 김동석 (02-3677-2050)
			팀 장 : 장영자 (02-3677-2051)
			담 당 : 서혜란 (02-3677-2052)

김종천 과천시장, 과천청사일대 주택공급계획 관련 대안 발표

- “과천과천지구, 자족용지 및 유보용지 일부 주택용지 변경하고 주거 용지 용적률 상향시켜 2천 세대 확보”, “이외 교통여건 양호지역에 대안 검토”
- “중앙동 4, 5번지 디지털 의료 및 바이오 복합시설 조성”

김종천 과천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과천시민의 뜻에 따라 반대하고 있으며,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천 시장은 시에서 검토한 대안으로 ▲ 과천과천지구, 자족용지 및 유보용지 일부 주택용지 변경과 주거용지 용적률 상향으로 2천여 세대 확보 ▲ 교통 여건 양호한 지역에 2천여 세대 추가 대안 검토 중 ▲ 중앙동 4, 5번지 디지털 의료 및 바이오 복합시설 조성 ▲ 중앙동 6번지는 시민광장으로 조성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청사 유희지인 중앙동 4, 5번지에 디지털 의료 및 바이오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과천과천지구에 줄어드는 자족기능을 청사 유희지를 통해 확보하는 안으로 과천시 전체 자족기능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종합병원 유치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종합병원과 결합한 의료연구단지는 청사유희지를 잘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 제시한 대안이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을 막으면서,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정책의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오늘 제시한 대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으니, 마련한 대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사 외에도 국토부, LH 등에 사업추진 경과를 확인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 내에서 사업추진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의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공식적으로 발표될 경우 정부가 정책을 후퇴하는 것이 어려워지기에, 시는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발표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시의 대안 검토 소식이 알려지고, 지난 월요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청사일대에 대한 주택공급을 지자체와 협의를 한 것과 같이 발표가 되면서, 시가 시민들 모르게 정부와 대안을 협의한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그간 정부와 대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시민여러분들께서 8.4 대책 이후 청사 주택 문제로 많은

심적 고통을 겪으시고, 청사앞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시며 고생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과천시 공직자들은 시민여러분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청사주택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